

영암군 한국 씨름 부흥 나선다

초·중·고 대상으로 찾아가는 씨름 교실 운영

씨름 체육관 건립 등 활성화 정책 적극 펼쳐

영암군에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씨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씨름의 부흥의 해로 만든다는 힘찬 다짐으로 군정을 시작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창단 3년만에 천하장사씨름대추제에서 한라장사와 천하장사를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19회 장사 등극 및 전국체전 금메달2개 획득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명문 씨름단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영암군민속씨름단과 더불어 대한민국 씨름은 2017년 무형문화재 131호로 지정된데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남북공동등재,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

다. 이에 힘입은 군은 영암군 민속 씨름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더불어 군민과 함께하는 씨름이라는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씨름교실"을 올해 최초로 운영하고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뮤지컬 "하늘나라 다섯장군과 씨름 이야기"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대한씨름협회의 씨름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동평 군수는 2020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군에서 치러진 추석장사씨름대회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씨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영암군이 대한민국 씨름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잡아갈 것"을 강조하며,



작년 추석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암군청 씨름 선수단

"향후 초·중·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을 적극 검토해서 씨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남도문화 보고, 국립 현대미술관·민속예술대학 건립 추진

세계에서 유일한 일가 직계 5대 화맥의 산실로도 유명한 운림산방과 소치 기념관을 비롯 남진·소전미술관 등 현재 9개 미술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은 전국 최대 국전 특선작가 150명을 배출한 지역이다.

최근 5년동안 국전 특선 작가 작품 기증이 1,500점이나 된다. 전시 공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진도군은 예향의 이미지를 강조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과 국립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운림산방에서 시작된 남종화와 서예, 장(唱) 등으로 이룩한 예술의 분향이란 점을 강조한 프로젝트이다. 또 한국화에 대한 국가적인 전승·관리가 안 되고 있

다는 점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은 국비 450억원을 투입, 진도군 의신면 일원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닌 대한민국 한국화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이 핵심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정부 건의를 비롯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진도국악고등학교, 국립남도국악원이 운영되고 있는 진도군에 한국화학과, 서예예술학과 등 5개 학과를 기본으로 600억원을 투입, 서·화·악 등 전문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 전승 보존을 위해 국립 한국민속예술대학도 건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남도국악원 인근

에 16,551㎡ 규모의 예술인촌 조성을 위해 택지 매각도 민간에 2018년 7월 완료한 상태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3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세계적으로 한류가 대세인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과 국립한국민속예술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서화와 국악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시켜 진도군이 한국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겨울 별미 '완도 매생이' 본격 출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무공해 식품

완도군에서는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본격적으로 매생이를 생산하고 있다.

완도군의 매생이 생산량은 전국 대비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과 약산에서 채취되는 매생이는 맛과 향이 뛰어나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러나는 곳 중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무공해 식품이다.

또한 철분과 칼륨, 비타민, 단백질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성 고단백 식품이며, 우주 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속취 해소에도 좋다.

군은 매생이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군 대표 소평물인 '완도군 이썬'을 통해 햇 매생이, 급속 냉동하여 맛과 향을 유지시킨 냉동 매생이, 건조 매생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매생이는 매생이만 넣어 국으로 끓여 먹어도 좋고, 매생이 칼국수, 매생이 달걀말이, 떡국뿐만 아니



라 국을 곁들여 죽, 전, 국으로 먹어도 맛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생이의 효능을 적극 알리고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여가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평수 기자

청자골강진표고, 직거래로 연간 1억 2천만 원 매출

고정고객 DB 활용 적극 홍보·택배비 지원 등 큰 힘



강진군 강진읍 부춘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청자골강진표고 박진천(54세) 대표는 민속대명절 설을 2주 가량 앞두고 대도시 및 고정고객 등 소비자 예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 표고버섯 생산에 여념이 없다.

8년 전 강진으로 귀농한 박 대표는 이제는 타지역 버섯재배농

업인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역대 부농 대열에 올라와 있는 강진군의 선진 농업인이다.

박 대표는 강진군이 직영하는 농특산물직거래지원센터의 설립과 군에서 지원해주는 택배비, 포장재, 생산기반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른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강진 농산물을 구매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정 및 평생 고객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구매고객 DB화 작업을 통해 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 등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높은 소득을 이뤄낼 수 있었다. 박 대표는 2019년 지난 한해 동안 버섯 판매로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 대표는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포장재 지원사업, 시설확대 지원사업, 재배기술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고객DB를 활용한 행정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어우러져 우리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남다른 고마움을 표했다.

청자골강진표고농장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맛과 향이 좋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해 렌티난이라는 암세포 증식을 저해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포시, 방문진료 서비스 시작...생애주기에 따른 의료 서비스



목포시가 맞춤형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동네, 작은보건소'를 운영한다. 이는 주민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보건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등에 배치된 간호직공무원을 통한 통합돌봄 확대와 맞춤형 주민건강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다양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암환자)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장하는 모자보건 지원체계 구축 등도 강화한다.

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해 이미 23개 전체 등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 해부터는 등록된 건강취약기정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경로당 등을 매일 순회 방문해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